

방탄소년단, 올해 글로벌 트위터 ‘최다트윗’…전세계 SNS 까지 녹였다

국내 팔로어 1000만 돌파…팔로어수 1위 올해 무려 600만여명 ‘최다성장’ 계정

그들 방탄소년단이 올해 글로벌 트위터 계정 중 가장 많이 트윗했다. 이들의 SNS 소통과 그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5일 트위터코리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올해 글로벌 트위터 계정 중 최다 트윗 및 국내 최다 리트윗 기록을 세웠다. 트위터코

리아는 올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생성한 트윗과 계정을 '#ThisHappend' '#2017어떤일이'라는 해시태그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트위터 계정 중 가장 많이 트윗(@BTS_twt)했다. 뒤이어 그룹 세븐틴(@pledis_17)이 2위, 몬스타엑스(@OfficialMonstaX)가 9위에 각각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톱 10 노래 중 7위에 '러브 유어셀프 승 헤(#love_yourself)를 올려놓았다. 1위는 엑소의 '코코팝'(#k

kobop)이었다.

방탄소년단은 또 국내 팔로어 1000만을 돌파하며 팔로어수 1위를 차지했다. 올해에만 무려 600만여 명의 증가세로 가장 크게 성장한 계정이 됐다. 또 멤버 정국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트윗으로는 37만 건의 리트윗과 77만 건의 '마음에 들어요'를 받아 올해 최다 리트윗했다. 이들은 5월22일 빌보드 뮤직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으며 국내 가장 많은 트윗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방탄소년단과 엑소 등이 얻은 성과는 올해

글로벌 트위터의 전체 키워드가 '케이팝'일 정도로 눈에 띈다고 트위터코리아 측은 밝혔다.

국내 트위터 계정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페미니즘' '성소수자' '낙태죄 폐지' '비정규직' '세월호'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5일 빌보드가 발표한 핫 100 최신차트에서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으로 28위에 올랐다. 케이팝 그룹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BTS Earns Highest-Charting First Top 40 Hot 100 Hit for a K-Pop Group With 'MIC Drop



비극물서 첩보액션물로…‘분단영화’의 진화

14일 개봉 '강철비'로 본 분단영화

2000년 이전 반공주의적 시선들 일색 한반도 정세 변화 속 휴머니즘 더해져 155억 들인 강철비, 액션+감동 스토리 '분단현실 재미·의미 함께 담는게 관건'

쿠데타가 발생한 북한에서 권력자가 남한으로 내려온 뒤 핵전쟁의 위기에 놓이는 한반도. 14일 개봉하는 영화 '강철비'(감독 양우석·제작 와이웍스엔터테인먼트)의 이야기 일개다.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잇단 제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철비'가 현실감 있는 스토리로 관객에게 다가설지 관심을 모은다.

같은 이름을 지닌 탈북 여성과 남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그린 '연희와 연희'(감독 최중구, 손병조·제작 장풍E&M)도 같은 날 선보인다. 또 분단 상황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와 단편영화를 한 자리에서 소개한 '통일 영화 제작지원 상영회'도 최근 열렸다. '공작'과 'PMC' '413' 등 내년 개봉을 목표로 현재 제작 중인 작품도 적지 않다.

상업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 분단 상황에서 출발하는 이전 스타 작품들의 계보를 잇는다. 그만큼 분단현실은 오랜 시간 한국 영화의 주된 소재와 배경으로 활용돼왔다.

●“분단의 아픈 현실, 액션+휴먼+감동의 스토리를 상상케 하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제’를 충실히 담아내는 데 있어 분단 상황은 가장 두

렷한 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38선이 그어진 직후 제작된 1949년작 한형모 감독의 '성벽을 뚫고'부터 최근 '강철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화가 만들어낸 것도 분단 상황이 현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분단현실은 국민의 현실에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흥행작 '공조'의 한 제작관계자도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아픈 현실이 출발점이다”면서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가 제한된 상황도 영화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상상력은 현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요소. 이 관계자는 “분단으로 인해 또렷하게 대비되는 남과 북의 인물들과 이들이 벌이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상상 가능한 이야기가 관객의 보편적 감성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했다. 전찬일 평론가는 “대체로 액션과 휴먼 그리고 감동이 버무러지는 스토리가 많은데, 이 같은 코드는 상업영화의 틀에도 멋지게 부응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용의자' 등 분단 소재의 많은 영화가 흥행했고, 그 '타율' 역시 아직은 높은 편에 속한다. 155억원을 들인 '강철비' 등 그 제작비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영화계가 분단 소재 영화에 공을 들이는 또 하나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제는 미래지향으로”
‘공동경비구역 JSA’가 흥행에 성공한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분단 소재 영화는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거쳐 여전히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 탓이었다. 반공이데올로기를 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정치적 현실도 분단현실을 영화화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바뀌고 권력의 성격 등이 변화하면서 영화도 획일적인 반공주의적 시각과는 또 다른 시선으로 분단현실을 그려낼 수 있게 됐다. 강경한 기득권 세력의 권력논리와 야욕 등이 빛은 위기 속에서 사

건을 해결해가는 주인공들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휴머니즘의 시각으로 담아내는 영화가 대세를 이루기도 한다.

전찬일 평론가는 “분단현실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그려 재미와 함께 의미를 담아내느냐 문제도 관건”이라며 “이제는 정치적 논리를 넘어 통일에 기여하거나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텍스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분단영화 역대 흥행작 5 ※자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제목	공조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연평해전	의형제
개봉년도	2017년	2013년	2013년	2015년	2010년
관객수	781만7000여명	716만6000여명	695만9000여명	604만4000여명	541만6000여명
감독	김성훈	류승완	장철수	김학순	장훈
주연	유해진·현빈	한석규·하정우·전지현	김수현	김무열·진구	송강호·강동원
내용	위조지폐 동판을 둘러싼 남북한 두 형사의 공조	국제적 음모에 휘말린 뒤북 첩보요원	바보로 위장한 남파간첩	2002년 6월 서해상 2차 연평해전	남파간첩과 전직 국정원 요원의 대립과 화해

※'인천상륙작전'(705만여명) '월킥 투 동막골'(643만6000여명) 등 한국전쟁을 주요 소재로 삼거나 배경으로 한 작품을 제외한 정전 이후 분단 상황 배경 영화

▲영화 '강철비' 사진제공 | NEW

데뷔 전부터 팬덤몰이…‘괴물 신인들’ 개봉박두

‘좋아’ 민서·더보이즈·신류진 파란 정식데뷔 눈앞…CF서 이미 러브콜

화려하게 데뷔해 대중의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가수들이 있는가하면 정식 데뷔하기도 전에 팬덤을 몰고 다니며 ‘스타’ 대접을 받는 이들이 있다. 요즘 데뷔 전부터 주목받는 주인공은 가수 민서,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신류진이다. 이들을 두고 ‘괴물 신인’이라 칭한다.

이들은 모두 정식 데뷔음반을 발표하기 전이라는 것 외에도 출중한 실력과 잠재된 폭발력을 지녔다. 그리고 감추려야 감추 수 없는 매력을 대중이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가운데 민서의 행보는 ‘파란’에 가깝다. 민서는 ‘좋아’라는 곡으로 최근 각종 음원차트와 TV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틈과 얼굴, 어느 것 하나 알려지지 않은 ‘생파’ 신인이지만,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청순한 외모 등으로 대중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덕분에 그가 2015년 연습생 신분으로 출연한 ‘슈퍼스타K7’ 당시 모습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조만간 발표하는 데뷔음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데뷔앨범 ‘더 퍼스트’를 발표하고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는 12인조 더보이즈 역시 신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당한 파급력을 지녔다. 웹넷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인 주혁년

과 ‘고등래퍼’ 출신 선우, SBS ‘K팝스타6’ 출신의 케빈 등이 한 팀으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멤버마다 기본 실력이 뛰어나고, 동방신기 소녀시대 에프엑스 등을 기획한 인물이 더보이즈 멤버들을 구성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더보이즈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들의 트위터 팔로어는 18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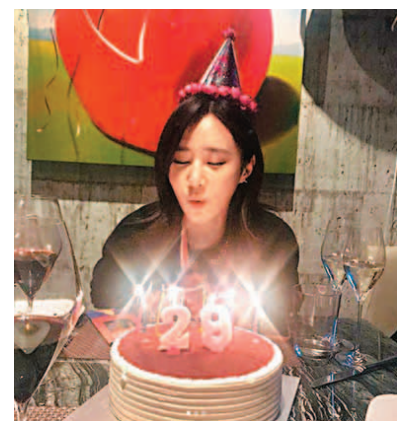
▲영화 '강철비' 사진제공 | NEW

8000명을 넘었다. 상상치 않은 잠재력을 간파한 광고계에서도 이들을 주목했다. 이미 통신사, 치킨, 의류 등 15개의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논의 중이다. 스타급만 내세우던 한 유명 학생복 업체와 화장품 브랜드는 이미 더보이즈를 내세워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 소니뮤직은 일찌감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마치고 일본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나섰다.

최근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신류진은 연습생 3년차로 JTBC ‘믹스나인’의 출연자 가운데 한 명이다. 트와이스를 잇는 JYP엔터테인먼트 차세대 걸그룹의 한 멤버로 알려진 신류진은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들을 압도하는 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 신류진에 대한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면서 최근 프로그램 시청률이 폭발하자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해시태그 컷



‘소녀시대’ 우리가 벌써 스물아홉?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우리가 스물아홉 번째 생일을 맞았다. 1989년 12월5일 태어난 우리는 20대의 마지막 생일파티를 즐기며 한껏 들뜬 모습이다. 그의 행복한 표정만큼 케이크에 꽂혀있는 ‘29’라는 숫자가 한눈에 들어온다. 초를 끄기 전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30대를 앞둔 우리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진다. 팬들은 “생일이라 더 예뻐 보인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등의 축하글을 남겼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소녀시대 #우리 #29살생일 #생축

이 영화

투씨

더스틴 호프만의 ‘페미니즘’을 겨울 페미니즘과 다를까?



여기저기서 페미니즘 이야기가 들린다. 최근 배우 유아인이 SNS를 통해 꺼낸 주장과 발언이 계기가 됐다. 2017년 지금 페미니즘이 다시 화두에 오른 걸 보면 여전히 여성 권리와 기회 평등은 특수한 영역에 속한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논쟁의 가운데 새삼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1982년 나온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투씨’이다. 뉴욕에서 20년간 무명 배우로 살아간 주인공 마이클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지만 매년 연출자에 불만을 표출하고 사사건건 따지는 성격 탓에 오디션에서 줄줄이 낙방한다. 그러다 우연히 여장을 한 TV 병원드라마 오디션에 응시한다. 여장한 마이클이 진짜 여배우인 줄 아는 드라마 프로듀서는 그에게 주요 배역을 맡긴다.

도시사라는 이름의 여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마이클은 촬영장에서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감독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사실은 남자인 탓에 그의 언행은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여자로서는 주위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여자가 그래도 되느냐’는 시선이이다.

당당하고 자유분방한 마이클의 행동은 이내 드라마에 참여하는 여배우는 물론 여성 스태프들의 지지를 받는다. 감독이 요구하는 ‘수동적 여성 캐릭터’가 아닌 자립심 강한 인물을 자발적으로 그려내면서 마이클은 여성 시청자의 워너비로도 자리 잡는다.

영화에서 마이클이 하는 행동과 말은 그대로 당대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하다. 마이클이 여배우 행세를 하면서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불이익, 차별의 모습들은 역설적이게도 페미니스트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30년이 더 지난 지금 봐도 공감되는 걸 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은 것 같다. 이해리 기자